

IBKS CARBON FINANCE

Invitation to Better Carbon Story

WEEKLY REPORT
VOL.2
2025.06.23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TOP HEADLINES

- 2025년 EU 탄소배출권 (EUA) 가격, 전년대비 15% 상승 전망
- EU, 2040 기후 목표에 ITMO 활용 가능성, CBAM 완화 기대
- EU 위원회, 메탄 규제 조기 재검토 거부
- 대만, 2027년 자체적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예정
- 감축에서 제거로, 스위스-노르웨이 세계최초 '탄소 제거 협정' 발표
- 호주, 바이오연료용 Oil seed 식재 탄소감축 방법에 포함 검토
- 사우디 VCMC, 네옴과 손잡고 3천만 탄소크레딧 계약 체결
- ICE, CORSIA 선물 계약 기준 확대 추진, ART 포함 검토
- EU, SAF 확대 위해 2억 리터 규모 보조금 지원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2025년 EU 탄소배출권 (EUA) 가격, 전년대비 15% 상승 전망

ClearBlue Markets, Energy Aspects, Pact Capital, Vertis, Veyt 등 5개 탄소 마켓 전문기업은 2025년 EUA (탄소배출권) 가격 전망치를 평균 76.57유로/톤으로 전망

이는 2024년 평균 EUA 가격보다 약 15% (10.04유로) 높은 수준

EUA 가격 상승 기대 요인

- **공급 타이트 기대**: 2026년부터 경매 공급량 축소 예상, 시장이 2025년 하반기부터 대비하며 가격 상승 전망
- **투자자 매수세 복귀**: 공급 축소를 예상한 장기 투자자들이 하반기 매수 포지션을 잡으며 가격 지지 기대
- **정책/수요 기반 강세 가능성**:
 - 9월 EUA 준수 마감에 따른 수요 증가
 - 7월 말 예정된 EU 2040 기후 목표 발표
 - ETS 지침 개정 논의 가능성 (선반영 효과 기대)

EUA 가격 하락 요인 및 리스크

- **정치적 불확실성**: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등 주요 EU회원국의 정치 불안정성이 가격에 부정적 영향
- **무역 리스크**: 2025년 말까지 무역 긴장이 지속될 경우, 시장에 심리적 하방 압력 작용
- **산업 수요 감소**: 산업용 가스 수요가 3% 감소, 실물 수요 기반의 가격 약세 우려

EU, 2040 기후 목표에 ITMO 활용 가능성, CBAM 완화 기대

EU가 2040년 기후 목표에 UN 파리협정 제 6조 기반의 국제 탄소 크레딧 활용을 검토함에 따라, EU의 CBAM에서도 ITMO를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

현재 EU는 ITMO와 같은 국제 탄소 크레딧을 탄소비용 지불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EU 수출 기업은 CBAM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국제 크레딧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기업 경쟁력 및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

EU가 2040년 목표 달성을 위해 ITMO를 활용할 시, 브라질, 베트남, 싱가포르 등 자국 배출권 제도에 ITMO를 포함한 국가들의 CBAM 부담이 줄어들 전망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는 CBAM의 행정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규정 개편에도 합의한 상황으로, 향후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가능성이 더욱 주목. EU의 2040년 기후 목표는 7월 중 발표될 예정

*ITM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달성을 위한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

EU 위원회, 메탄 규제 조기 재검토 거부

EU 집행위원회는 1년 전 제정된 메탄 규제의 조기 재검토 요청을 거부하며, 현행 법률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올해부터 시행된 메탄 규제는 EU 내 석유·가스 생산자 및 석탄 채굴업자를 대상으로 메탄의 배출 강도 기준을 설정하고, 2027년부터 수입 화석연료에도 모니터링·보고·검증 의무를 부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메탄 누출의 최소화가 목표

일부 회원국은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대다수 회원국은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이나 대기 중 체류 시간이 짧은 편. 따라서 메탄 감축은 빠른 온실가스 농도 상승을 억제하는 데 핵심적임.

대만, 2027년 자체적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예정

대만 환경부가 2027년에 철강 및 시멘트 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국내 버전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시험운영을 시작할 것이라 밝힘.

EU CBAM을 참고해 배출량 보고 기준, 배출 기준선 설정, 탄소배출 산출 방식 등의 세부 절차를 마련 중

대만 정부는 2024년까지 관련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제도 홍보 절차를 거쳐 2027년 시험운영을 본격화할 예정. 대만의 CBAM 도입 목적은 철강 산업 등 주요 중공업 부문의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음. 대만은 세계 13위 철강 생산국으로 이번 조치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이와 함께 대만은 올해부터 대규모 배출 업체에 대해 탄소 배출량 산정을 의무화하고, 내년 5월부터 탄소세를 도입할 전망. 기업들은 자발적 탄소 크레딧을 최대 10%까지 활용해 탄소세 납부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음. 대만 정부는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세를 점차 배출권 거래제로 전환할 계획

감축에서 제거로, 스위스-노르웨이 세계 최초 ‘탄소 제거 협정’ 발표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세계 최초로 국가 간 ‘부의 배출^{*}’ 크레딧을 거래하는 양자 협정을 체결함. 이는 양국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서로 크레딧을 사고파는 ‘국제 거래’를 제도화 한 첫 사례

협정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BECCS (바이오에너지 탄소포집·저장)

기술로 제거한 이산화탄소 크레딧 1,000~10,000톤을 스위스에 판매하며, 스위스는 광물탄산화 기술로 제거한 크레딧 100~1,000톤을 노르웨이에 판매하는 소규모 시범 거래를 2028~2029년 중 추진할 예정

동 협정은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 감축 실적 이전 (ITMO)’ 기준을 충족하며, 이중계산 방지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 이를 통해 양국은 국제 탄소시장에서 탄소제거 기술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검증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거래 및 민간 기업 중심의 탄소 제거 시장 형성을 기대

***부의 배출 (Negative Emissions)**

: 단순히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것 (mitigation)이 아니라, 배출한 양보다 더 많은 CO₂를 대기에서 제거함으로써 순 탄소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

호주, 바이오연료용 Oil seed 식재 탄소감축 방법에 포함 검토

호주 정부가 Oil seed (식물성 오일을 추출하는 작물) 나무를 심어 탄소를 흡수하고, 이 나무에서 수확한 종자를 바이오연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기존 산림 기반 감축 방법론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 이는 탄소 저장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RAC (배출감축보장위원회)는 동 방안을 기존 방법론 안에 모듈로 통합하는 것을 검토

현재 논의 중인 기존 방법론 :

1. Plantation Forestry Method (산림 조림 방법론)

: 상업용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조림 활동에 ACCUs를 발행

2. RAA Method (재조림 및 조림 방법론)

: 영구적 숲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탄소를 저장

3. EP Method (환경 식재)

: 토종 나무 식재만 허용

→ 이 중 RAA 방식이 갱신 예정(2025년 9월 만료)이므로,
새로운 Oil seed를 추가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의견

Oil seed 식재 프로젝트는 탄소배출권(ACCUs)과 연료 수익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유사, 항공사, 물류업체 등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헥타르당 약 100ACCUs의 탄소감축 효과 (중간 수준의 EP 프로젝트와 비슷한 수준)가 예상되어 경제성과 시장성이 높은 감축 활동으로 평가

사우디 VCMC, 네옴과 손잡고 3천만 탄소크레딧 계약 체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탄소배출권 거래소 VCMC가 국가 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네옴(Neom)’의 에너지 및 수도 부문 자회사 Enowa와 계약을 체결. 향후 10년 동안 최대 3천만 톤의 탄소 크레딧을 창출할 계획

VCMC (VCM Company)는 사우디 국부펀드 (PIF)와 사우디 증권 거래소의 지주사 (Tadawul Group)가 3년 전 공동 설립한 국영 기업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를 지원

Enowa는 2022년 설립된 회사로, 사우디 북서부에 조성 중인 초대형 미래 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네옴 (Neom) 내에서 재생 에너지로 도시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 네옴에는 최대 900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170km 길이의 직선형 도시 ‘더 라인 (The Line)’도 포함

금번 계약은 중동 지역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다만, 어떤 구체적인 탄소 절감 사업들이 진행될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

ICE, CORSIA 선물 계약 기준 확대 추진 ART 포함 검토

국제적 선물거래소 (ICE)는 CORSIA 1단계 (CP1) 선물 계약에 REDD+ 기반의 ART*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함.

현재 ICE CP1 계약은 Verra VCS, Gold Standard, ACR 3개 기준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CORSIA 1단계로 인증된 배출권이 부족해 공급난과 가격 급등을 겪은 것이 ART 기준 추가의 배경으로 지목됨.

ART 기준은 이미 CORSIA 1단계에서 인정받은 상태이며, 실제 배출권도 발행 중. 이번 제안이 승인될 시 시장 내 공급 가능한 탄소배출권이 확대되어 거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현재 CP1 선물 가격은 2025년 12월 선도 기준 톤당 약 16달러 (약 22,000원)

*ART (Architecture for REDD+ Transactions)

-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 산림 파괴, 황폐화를 막아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UN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 : + (plus)가 붙으면, 산림 보존·복원·지속가능한 관리까지 포함한 폭넓은 활동을 의미
- ART
 - : REDD+ 프로젝트를 국가 또는 준국가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검증·등록·발행 기준
 - : 산림 보존 활동으로 줄인 탄소배출을 정량화하고 거래 가능하게 만들.
 - : 정량적 기준과 제3자 검증을 거쳐 발행되며, UN 및 CORSIA 등에서 인정

EU,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SAF) 확대 위해 2억 리터 규모 보조금 지원

유럽연합은 항공사들이 기존 항공유 대신 지속가능 항공 연료 (SAF)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SAF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 이는 전 세계 SAF 생산량의 약 15%에 해당하며, SAF 수요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보조금은 EU 탄소배출권 2천만 개의 판매 수익을 재원으로 하며, e-연료 (이산화탄소 포집을 통해 합성된 연료)에는 리터당 최대 6유로 (약 9,000원), 바이오 연료에는 리터당 최대 0.5 유로 (약 800원)가 지원될 예정. 이는 최대 2.6억 리터의 SAF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을 전망

EU는 2025년부터 공항에서의 SAF 사용 의무화 비율을 2%, 2030년까지는 6%로 확대할 계획. 현재 항공 산업의 SAF 사용 비율은 0.3%에 불과하며, 고비용 문제로 전환이 어려운 상황 (SAF는 전통적 항공유 대비 3~5배 비쌈). 다만 이번 보조금 정책을 통해 가격 장벽을 완화하고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U는 작년까지 대부분의 배출권을 항공사에 무상 할당했으나, 현재는 무상 할당이 단계적으로 중단되고 있어 항공사의 배출 감축 압력이 확대

IBKS 탄소금융부 사업

탄소배출권

■ 규제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국내 탄소배출권 장내 거래(KRX)
- 국외 탄소배출권 현물 거래(EU, 중국 등)

■ 자발적 탄소배출권 트레이딩

- VERRA, GS 등 매매
- 비규제 글로벌기업 대상 배출권 공급

■ 국내외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 규제 및 자발적 시장 통용 가능 국내외 배출권 사업 개발 및 배출권 확보

환경에너지 파생상품

■ 에너지·원자재 선물 거래

- 탄소시장 유관 종목 개발 및 제공
- 원유, 납사, 곡물, EU배출권 등

■ 탄소배출권 펀드 개발 및 운용

- 업종별 특화 탄소배출권 펀드 상품화
- 국내외 탄소배출권 펀드 참여

■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조달

- PPA Offtaker / Spot REC 중개 & 주선
- 국내 발전소와 글로벌 RE100 기업 연계

탄소 금융조달

■ 구조화 상품 개발 및 중개

- Clean-Tech 기업&기술&설비 투자
- 주식,채권,원자재 등 파생결합분야 확대

■ 친환경 자산개발 PF

-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 스마트팩토리, 친환경공정설비 도입 등

■ ESG 특화 벤처 투자

- K-Taxonomy 기반 평가 및 금융 제공
- 기업 성장 동력 & Value & 수익 확보

■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IBK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수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0호
(2026.03.17 ~ 2027.03.16)

IBK투자증권 탄소금융부
carbon@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